

# 기업 75% “근로 확대해도 주 60시간 미만 활용”

대한상의, 연장근로 302개사 설문 응답기업 72% “특정상황만 사용”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는 기업 대상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연장근로를 하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

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7.8%였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 약 4분의 3인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다. 이어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 순이었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상당수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90.7%)이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76.7%)이 많았다.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27.8%), 연(16.6%), 반기(8.9%) 순이

었다.

연장근로가 확대되면 건강권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는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보상을 한다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은 이유로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이 어렵다’(32.7%)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도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 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로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고 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이연수 기자

## 광주조달청 주간 입찰동향

(3월 27~31일)

### 용역 12억·물품구매 34억·시설공사 151억

농성초 그린스마트 스쿨 등

구 제작 및 설치 적격심사(9억5,700만원) 등 12건 34억원이 예정됐다.

조달청은 이번주(3월27~31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산장비 전면교체 및 전환’ 등 총 384건, 3,077억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한다.

지역별 발주량은 대전 소재 본청 2,265억원, 서울지방청 436억원 등 2개청(2,701억원)이 전체 금액의 87.8%를 차지하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에서 376억원이 집행된다. 광주조달청은 8건 12억원이 예정됐다. 이 기간 물품구매 입찰은 국립해양조사원 수요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양조사선 건조’ 등 총 316건, 약 2,114억 원이 집행된다.

지역별로는 총액계약 대상 1,551억원 중 본청이 858억 원으로 55.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693억 원을 집행한다. 광주지방청은 29일 한국에너지공단 캠퍼스 본관동 시설 신축공사 적격심사(25억7,500만원),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선운2 A-2BL 아파트 주방가

구 제작 및 설치 적격심사(9억5,700만원) 등 12건 34억원이 예정됐다. 시설공사는 대구 도시건설본부 신천처리구역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 등 총 41건, 1,812억 원 상당을 집행할 예정이다.

41건 중 3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077억 원 상당(5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566억원, 대구시 348억원, 경상남도 250억원, 그 밖의 지역이 648억원이다.

광주에서 30일 서부교육지원청 광주농성초 그린스마트 스쿨 개축공사 적격심사 113억6,600만원, 31일 국립광주박물관 노후 흡수식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 수의계약 1억6,900만원 등 2건 115억3,000만원이 집행된다. 전남도에서는 28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화순지사 사평지구 대구형경지정리 토목공사 적격심사 33억1,300만원 등 2건 35억6,000만원이 예정돼 있다. /이연수 기자

##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시대 새 도약 다짐

광주시건축사회, 대면총회 감사에 김삼현 건축사 선출 정인재 회장 “회원 권익확대”

광주시건축사회 제36회 정기총회가 지난 24일 광주 서구 위더스웨딩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3년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공간의 가치를 더하고 공적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이 걸어온 36년을 돌아보고, 본격적인 협회 의무가입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단결과 화합의 장이 됐다.

총회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안평환 시의원, 김중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을 비롯해 내외빈,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시아 아트’ 금관 5중주단의 화려하고 시원한 사운드로 막을 올렸으며 폐막까지 축제 분위기가 성료됐다.

김준철 건축사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는 유공 회원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정인재 회장의 사제 출연으로 조성한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2부에서는 부의 안전인 회칙개정,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수지 결산안 승인,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수지 예산안 승인,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을 원안 의결했다.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린 광주건축사회 제36회 정기총회가 지난 24일 광주 서구 위더스웨딩홀에서 개최됐다. /광주건축사회 제공

이날 임기 2년의 감사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김삼현(길 건축사사무소)건축사가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김 감사는 광주건축사회 신흥 감사도 겸하게 된다. 신임 이사 7명에 대한 선임도 이뤄졌다.

한편 이날 광주건축사 신흥 제41차 정기총회와 광주건축사 연금 관리위원회 제17차 정기총회도 함께 열렸다. 광주건축사 신흥 부이사장에

는 김선영 건축사, 이사에는 정상재, 김준철 건축사가 각각 선출됐다.

정인재 광주건축사회장은 “건축사는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이 크다”면서 “회원들의 단합된 의지와 열기를 모아 의무가입시대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회원 권익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 최은모 광주전남기업협의회회장 내일 취임

정기총회서 부회장 12명도 선출

한국무역협회제11대 광주전남기업협의회장에 ㈜무진서비스 최은모 대표(사진)가 취임한다.



26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기업협의회는 오는 28일 강기정 광주시장,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 등 지역 무역업계 및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기업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은모 제11대 회장을 선임하고 주력 수출 업종별 12명의 부회장들도 새로 선출한다. /홍승현 기자

로또 6/45(1060회)	
당첨번호	3, 10, 24, 33, 38, 45 보너스 36
등위	당첨금액
1등	898,238,907원
2등	43,664,392원
3등	912,646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연금복권720+(151회)	
등위	당첨번호
1등	4조 256502
2등	각조 256502
3등	각조 56502
4등	각조 6502
5등	각조 502
6등	각조 02
7등	각조 2
보너스	각조 884688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